

람보르기니 설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람보르기니는 1933년으로 거슬러간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이탈리아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활약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인 아사노를 세웠다. 이 업종이 붐이 일기 시작하자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라는 토리체 지역의 자동차 회사가 생겼다. 페루치오의 캐릭터 호칭은 '트랙터'였다. '나와 트랙터'라는 대담한 장이 나오기도 했다. '트랙터'였다. 때문에 그의 회사 이름이 '이탈리아 트랙터'로 바뀌었다. 페루치오는 트랙터를 좋아했다. 페루치오는 트랙터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얻은 후에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트랙터 업체였던 '슈퍼카' 업체를 인수해 알파로메오를 인수했다. 알파로메오의 2500cc 엔진을